

뱀, (외국, 혀: 감각 예민함)

트렌드코리아 2025 "SNAKE SENSE"

뱀처럼 예민한 감각이 절실한 정체의 시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

경제, 밋밋, 변화가 각기 때문

노베라 조사 회사(?)

한다혜 박사

〈트렌드코리아〉 시리즈 공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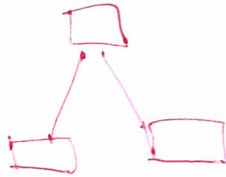
2025년은 을사乙巳년 푸른 뱀띠 해다. 뱀은 배腹와 움動이 합쳐진 말, 즉 배로 움직이는 동물이라는 뜻이다. 배로 기어가는 긴 형태와 독성 때문인지 뱀은 오랫동안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뱀을 보면 왠지 징그럽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에서 보듯, 간악한 이미지도 강하다. 반면 뱀에게는 숭상의 측면도 있다. 새끼를 많이 낳기에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며, 꿈에 뱀이 나오면 재물이나 자녀를 얻을 징조라고 해석한다. 치유력을 가진 존재여서 의술 관련한 상징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성서에도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는 표현이 있듯이, 뱀은 현명한 존재로 여겨져 왔다. 뱀은 이중적 존재다.

뱀은 환경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이다. 자기몸이 커지면 허물을 벗고, 날이 추워지면 동면을 한다. 구태舊態를 미련없이 버리고 떠난 자취를 보면, 뱀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지도 모른다는 불사不死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이런 특성은 환경변화가 상수가 된 현대사회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트렌드가 격변하는 시대에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환경적응과 자기혁신,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즉, 껍질을 벗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늘 성장해 나가야 하고, 추워지면 추운대로 더워지면 더운대로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적응과 혁신을 실천하려면 그 첫 단계는 환경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일이다. 그래서인지 보기와 다르게 뱀은 매우 발달한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다. 뱀은 후각이 예민하다. 혀를 낼름거리는 이유는 먹이의 냄새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열을 감지할 수도 있고 미세한 땅의 진동이나 세밀한 공기의 흐름을 느껴 먹이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뱀의 눈은 크고 무서운데 이 역시 어둠 속에서도 먹이를 잘 볼 수 있도록 눈동자가 발달한 탓이다. 한 마디로 가능한 감각기관을 총동원해 환경변화를 감지하고 먹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뱀의 비범함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대응이 어려운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감각과 직관을 총동원해 변화를 감지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탐색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뱀이 가진 예민한 감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녹녹치 않은 2025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뱀snake처럼 섬세한 감각sense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올해의 영문키워드 두운은 'SNAKE SENSE'로 정했다. 뱀처럼 날카로운 감각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아채자.

목표: 감각이 나타나는.
경향: 세련됨, 착한세.



학부모 모임 5분 → 15분 매가 있다.

Savoring a Bit of Everything: Omnivores **옴니보어**

칼세대 인기

소비의 전형성이 무너진다. 집단의 차이는 줄고, 개인의 차이는 늘고 있다. 옴니보어는 원래 '잡식성雜食性'이라는 의미지만, 파생적으로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옴니보어 소비 현상은 나이와 성별, 소득, 인종에 따른 경계와 구분을 지우고 완전히 새로운 소비시장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고정관념이 사라진 시대, 모든 전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경기침체 / SNS 극한 피로 / 수백 명장으로 경계 무너짐. / 세미 칼등 줄어들음

이제껏 키워드 4.

Nothing Out of the Ordinary: Very Ordinary Day #아보하 ↔ 소확행 (소비자상국어로 변형음).

이제껏 5

불행한 것은 싫지만 너무 행복한 것도 바라지 않는다. 험한 세상, 오늘 하루 무사히 넘어간 것에 감사하며, 특별히 좋은 일이 없어도, 행복한 일이 찾아오지 않아도, 안온한 일상에 만족한다. '아주 보통의 하루'가 주는 안도감이 어찌면 바로 행복일지 모른다. #아보하. 대한민국 행복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과식안함 / 명동경노력 / 공로차량 / 생동추구 / 니로코르바 커강

어떻게 꾸밀까?

All About the Toppings 토핑경제

같은 도우라도 토핑이 다르면 이름과 가격이 달라진다. 같은 신발, 같은 가방이라도 무엇으로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나만의 것이 된다. 토핑경제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 당신의 상품은 아직 미완성이다. 고객이 토핑을 더해줄 때까지는.

표준화
→ 맞춤화

기술

Keeping It Human: Face Tech 페이스테크

누구나 먼저 얼굴을 본다. 기술도 마찬가지다. 무생물인 기계에 표정을 입히고,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정확하게 읽어내며, 사용자마다 각자의 얼굴을 만들어주는 '페이스테크'가 뜬다. 생성형 AI 만능시대, 앞으로는 사람의 표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갖춘, 최대한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기업과 상품이 선택받을 것이다.

표준/표준
→ 행동있도

표준, 건강체크

Embracing Harmlessness 무해력

평가가 작고 커다라.

사회의 결함 보정하는 것임

작고 귀엽고 순수한 것들이 사랑받는다. 이들의 공통점은 해롭지 않고, 그래서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며, 굳이 반대하거나 비판할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방이 나를 공격해오는 것만 같은 험한 세상, 작고 귀엽고 연약한 존재는 그 자체로 힘을 갖는다. 무해하기 때문에 가지는 힘, 즉 '무해력'이다.

'아기'

~~고려한~~ 이별

Shifting Gradation of Korean Culture 그라데이션K

5%, 다문화 국가가 되었다

봉한심도시.
(문화심)

단군의 자손, 단일민족, 단일문화의 개념이 서서히 벌어지고 있다. 외국인 인구 비중이 5%에 육박하는 한국은 이제 '다문화국가' 다. K-팝, K-푸드, K-드라마 열풍 속에서 "진정으로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 에 대한 답은 찾기 쉽지 않다. 세계화와 로컬화가 서로 빠르게 섞이면서 지금 K는 0과 1사이에서 그라데이션이 진행중이다.

Experiencing the Physical: the Appeal of Materiality 물성매력

내가 직접 해본다.

디지털화과정

디지털이 아무리 발달하고 AI 로봇이 우리의 일상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엄연히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보고, 만지고, 느끼고 싶어 한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소비자들은 콘텐츠와 브랜드를 체화된 물성으로 경험하고자 하며, 그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한다. 지금, 당신의 상품에는 물성의 매력이 필요하다.

Need for Climate Sensitivity 기후감수성

날씨보장보험

양궁매포팅오라

책, [특명수]

역대급 무더위가 삼켜버린 2024 대한민국, 기후변화의 문제는 언젠가 다가올 수도 있는 미래가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현존하는 위험' 으로 급부상했다. 기후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후감수성' 은 이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뜨거운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덕목이다.

경제. Strategy of Coevolution 공진화 전략 경쟁사와 손잡는다. / 네트워크 경제.

상생을 도모하는 자연 생태계의 공진화에 현대 비즈니스의 성장비결이 숨어있다. 상호연결성이 높아진 오늘날의 경제에서는 같은 업종은 물론이고 다른 산업과도 긴밀한 연계를 통해 공동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협력하고, 애플은 오픈시와 손을 잡는다. 적과 나를 구분하지 않는 상생의 진화 전략. 공진화에 주목하라.

~~자차기발~~

자기배려

Everyone Has Their Own Strengths: One-Point-Up 원포인트업

요즘 직장인들은 위대한 인물을 롤모델 삼아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며 조금씩 성취감을 쌓아가고자 한다. 이처럼 지금 도달 가능한 한 가지 목표를 세워 집중함으로써, 나다움을 잃지 않는 자기계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원포인트업' 이다. 1퍼센트의 변화면 충분하다. 지금 나만의 밸류업을 시작하자.

$$\begin{aligned} 1.00^{365} &= 1.00 \\ 0.99^{365} &= 0.03 \\ 1.01^{365} &= 37.8 \end{aligned}$$